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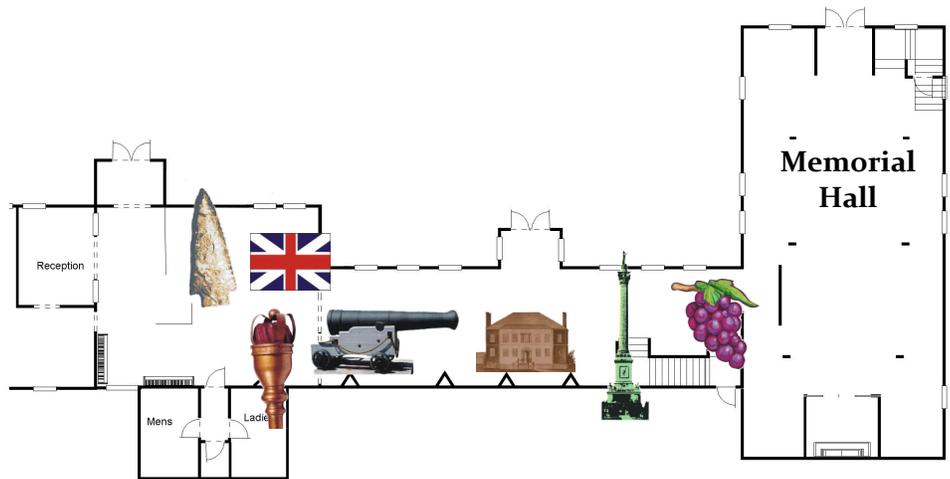
Korean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의 역사

박물관 입장하시면서 이 안내문에 표시된 로고와 같은 표시를 따라 가시면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

10,000 여년 전 빙하가 사라진 후부터 많은 종족들이 나이아가라를 삶의 터로 여기었다고 합니다. 미국 혁명이 일어난 후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이 지역이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온타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몇십년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나이아가라의 주민들은 집들을 산산조각낸 전쟁과 산업의 흥망, 농업의 변화, 수송방법의 진화, 그리고 경제의 호황과 불황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아주 독특한 사회로 발전했습니다.



기념관

1907년에 문을 연 기념관은 온타리오에서 처음으로 생긴 박물관입니다. 오늘날 이 박물관은 매년 두세번의 임시 전시회를 열어 나이아가라 역사의 다양한 모습과 세계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층은 자넷 카노찬 갤러리입니다. 이 갤러리에서도 임시 전시회를 열어 다른 상설 전시관이나 임시 전시회에서 보여주지 못한, 훌륭한 나이아가라의 역사 유물들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나이아가라의 역사의 좋은 예가 되는 많은 유품들을 돌아가며 전람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의 원주민

15세기 유럽 탐험가들이 미국대륙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나이아가라 원주민들은 11,000년이 넘도록 이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목민들로서 사냥을 하고 열매를 따먹으며 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한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1300년경에는 뉴트럴 족을 비롯한 고유한 종족들이 생겨나 이로쿠와족이 1650년경 나이아가라에 쳐들어오기 전까지 이 지대에 거주하였습니다. 뉴트럴 족이 없어지면서 세네카족과 미시사가족이 잠시 이 나이아가라 지역에 살기도 하였습니



로알리스트

유나이티드 엠파이어 로알리스트는 영 제국의 통합에 뜻을 함께하고 1783년 분리협정이전 대영제국영국의 왕당파에 소속된 미국 식민인들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이 단체는 국적, 인종적, 사회적 위치, 종교적으로 다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목숨과 가정, 땅, 물품을 희생하면서까지 미공화당으로부터 멀리하려 했으며 영국정부에 의해 정의가 수호되어야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8만명에 달하는 왕당파 피난민들이 퀘벡, 마리타임, 영국, 영국령 캐리비안과 아프리카로 떠났다고 하며, 약 5천명 정도가 나이아가라 지역에 정착하여 이 지역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1792-1796



어퍼 캐나다는 1791년 12월 26일에 형성되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존 그레이브 심코를 첫 부총독으로 임명하였고 뉴와크 (지금의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 가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의 온타리오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쟁터 나이아가라: 1812 - 14년 전쟁

1812년 6월, 미국이 영국에대한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후 3년동안 나이아가라는 미국의 침입으로 피문은 전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캐나다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대한 시기였으나 마침내 어퍼 캐나다는 보존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의 재건설

1815년 초, <1812 - 14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나이아가라의 남자들이 출정에서 돌아와 손상된 집과 가업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몇년에 걸친 재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1831년 나이아가라 항만 회사(Niagara Harbour and Dock Company)의 설립은 이지역이 번영에 더욱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1860년경 상업의 중심과 카운티의 수도가 웰랜드 카날이 가로지르는 세인트캐서린으로 옮겨가면서, 나이아가라는 불황을 이겨나가기 위해 농업지대를 과수원으로 바꾸기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나이아가라는 미국 노예, 패배한 연합군 장교와 병사, 그리고 영국 고아들의 피난처로 알려졌습니다.



성장 과정

1870년 초까지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는 카운티 수도 닥 컴파니와 군부대의 이전과 함께 경제적 쇠락을 여러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나이아가라를 부양할 다른 방법을 찾기시작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함께 나이아가라의 과거를 기념하는 사업이 이 이동네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수천명의 군인들이 세계 제1차 와제2차 대전쟁중 해외로 파견되기 전에 포트 조지예비사단(the Fort George Military Reserve)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나이아가라 기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이 기지는 군사작전을 중지하게 하였고, 나이아가라는 새로운 진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한동안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는 지속적인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는 다져진 문화적 유산, 포도농장 그리고 버나드 셔 페스티발 극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지역이 더욱 확장되고 전원지역까지 번창하고 있습니다.